

## 영화 [적벽대전] 인물분석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

삼국지 인물분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적벽대전을 재미있게 보았다.

영화를 보면서 소설과 크게 다른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번째는 소설에 비해 여성들의 역할이 많이 부각되었다. 삼국지가 여성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소설과 다르게 영화에서는 소교와 손상향의 역할을 많이 첨가시켰고, 로맨스를 가미했다.



외향난초기질-소교

소설에서 제갈량은 방통을 적진에 거짓 항복시켜 조조군의 배를 서로 묶도록 한다. 화공을 가할 때 배들이 서로 붙어 있어 불이 잘 번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반면, 영화에서는 소교가 적진의 조조를 찾아가 차를 대접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한 것으로 설정하여 소교의 역할을 확대 시켰다. 만일, 그렇다면 소교는 미인계를 쓰는 외향난초기질 정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외향매화기질-손상향

손상향 역시 소설에서는 적벽대전 이후에 유비의 아내가 되었다가 유비와 이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영화에서는 적진에 침투하여 정보를 빼오는 여장 스파이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적군 군사와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가 가미되어 있다. 손상향은 용감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외향매화기질로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삼국지 전반에 흐르는 싸움과 분열을 영화에서는 통합과 화합으로 전환시켜 놓았다.



내향대나무기질-제갈량      외향대나무기질-주유

영화에서 주유와 제갈량은 서로 화합하고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소설에서 주유는 끊임없이 제갈량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제갈량을 제거하려 했다. 주유는 조조보다 제갈량을 더 두려워했다. 적벽대전에서 싸움은 조조와 주유가 하고 전리품은 제갈량이 차지한다. 주유는 억울하여 제갈량 때문에 화병으로 죽는다. 영화에서는 이런 갈등과 경쟁 관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제갈량은 내향대나무기질이고 주유는 외향대나무기질이다. 대나무기질은 타 기질에 비해 경쟁적이다. 이들은 자신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제갈량과 주유의 경쟁은 결국 제갈량의 승리로 끝난다. 주유가 죽은 후 제갈량은 주유의 빈소를 찾아가 조문하며 통곡했다. 그의 통곡은 더 이상 세상에 자신과 경쟁할 사람이 없음을 인한 슬픔이었다.



외향대나무기질-조조

마지막 조조를 살려주는 장면 역시 소설과 다르다. 조조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조 스스로 적벽대전에서 패한 것을 알고 퇴각한다. 제갈량은 퇴각하는 길목에 관우를 배치하여 조조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관우는 살려달라는 조조를 죽이지 못했다. 관계와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내향국 화기질인 관우는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는 조조를 죽일 명분을 찾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에 조조에게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었다. 관우는 조조를 살려준다.



내향매화기질-노숙      내향대나무기질-제갈량

많은 사람들이 적벽대전을 제갈량의 지략으로 만들어진 주유와 조조의 싸움으로 기억 하지만, 실상 적벽대전을 성사시킨 사람은 내향매화기질인 손권이다. 조조 군대가 침범해 왔을 때 손권은 조조와 싸워야 할 것인지 항복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론은 분열되었다. 조조와 싸우기를 원했던 손권은 손권을 설득하기 위해 제갈량에게 도움을 구했다. 손권은 제갈량에게 손권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갈량 역시 손권이 조조와 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손권의 청을 받아들였다. 제갈량은 손권을 설득하기 위해 먼저 주유를 설득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제갈량은 주유를 설득하기 위해 조조가 지은 시를 인용했다. 제갈량은 조조가 주유의 아내인 소교를 탐내어 침략한 것이라고 주유를 자극했다. 주유는 제갈량의 지략에 넘어가 조조와 싸우게 된다. 주유와 제갈량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손권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주유가 제갈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제갈량의 형인 제갈건을 통해 주유를 설득하기도 하고, 제갈량이 10만개 화살을 만들 수 있도록 배와 물품을 준비하기도 한다. 손권은 소설과 영화에서 부각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무대 뒤에서 적벽대전을 만들고 적벽대전이 승리의 전쟁이 되도록 만든 참모중의 참모였다.



내향매화기질-손권

손권은 그의 형 손책과는 달리 보수적이며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오는 책상 귀퉁이를 칼로 자르는 모습은 그가 한 번 한 결심은 분명함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내향매화기질은 빨리 결정해야할 상황에서는 유연성이 떨어진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결정해야할 일이 생기면 모험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천자가 십상시들에게 쫓겨 다닐 때 지방 제후들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손권 역시 천자의 요청을 받았지만, 안전을 지향하는 그의 기질적 성향 때문에 천자를 모시는 모험을 거부했다. 하지만, 혁신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외향대나무기질인 조조는 하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고 십상시 무리를 제거하고 천자를 보호했다. 결국 조조는 천자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하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내향매화기질인 손권은 외부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을 살펴보면 내실을 잘 꾸린 군주임을 알 수 있다.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